

살아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

어떤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이거나 책에서 보고  
배우는 위인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 '믿는 자' 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우리의 선물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선물은 필요한 시기면 언제든지  
쓰여질 수 있어야 한다.



# 예수:

실존인물-비역사적 인물,  
사실-실제적 존재,  
지도자-우두머리급 인물



---

# 예수님의 초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준비된 신부가 그녀의 아름다운 신랑인 예수님(요한복음 13-15, 에베소서 2-5, 요한계시록 19:7)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성경에 나오는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나와 함께 하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안다면,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나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나처럼 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일들이 너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나와 함께 걸어간다면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기다려라, 신부여.”

오래전부터 예수의 이러한 초대에 사람들은 그를 찾으러 모여들었다. 예수의 초대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의 초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초대는 외적인 교리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마음가짐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예수님 없이 살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뜻하신 목적을 따르는 것 이외의 나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던지 나는 그를 따르는 양이 될거야.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면, 나도 그걸 따를거야. 예수님은 나의 일용한 양식이고 영양의 공급자이시지. 예수님은 지도자이시고 친절과 자비,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분이시다. 늘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거야. 예수님의 힘을 느끼고 싶고, 예수님의 강함을 보고 싶다. 예수님의 자비를 느끼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느끼고 싶다. 글로만 쓰여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실제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 싶어. 예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나의 이기적인 자만심과 게으름이나 못된 마음이 예수님을 아프게 할까봐 조심스러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 유혹은 늘 있지만 그 아픔은 너무나 클 것임을 알고 있어.”

예수님은 그 모든 점을 지니고 계신다. 글로 쓰여진 말씀 이외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혜와 수만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신다.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어떤 신이 지구를 창조하고 나서 크고 하얀 왕관을 쓴 채 앉아있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를 이끄는 그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자비로운 손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불완전한 의지이다. 예수님의 신뢰는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고 걸돌며,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더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틈을 자기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될 기회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존재를 일깨워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놀라울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물리치고 그만을 좇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신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당신은 늘상 경험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의 친절함과 자비, 그리고 변치않는 용서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웃음을 보고 예수님의 눈에서 섬광과 같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가 어떻게 바람에 날리지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곳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12-18). 당신은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담대함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정죄하시는 가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웃음을 듣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수님의 따뜻함도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예수님의 지도력과 힘을 보여주실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행동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며 이를 보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인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모든 괴로운 일을 예수님 손에 맡기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을 씻기고, 정결케 하며, 성령의 힘을 당신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수많은 다이아몬드와 루비, 그리고 다른 보석들을 꺼내 당신에게 보여주고 당신에게 걸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여왕으로, 또는 왕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은 군대와 같은 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라와주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이론상의 문제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교리상의 문제는 아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다가와 보여주었던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수많은 곳에서 몰려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이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하다가 따라오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해서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어떠한 성경 내용이 있었던가?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밤낮으로 기도했던 내용이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내가 말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한 뒤, “거기 12명,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던가? 그렇지 않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 놀라운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긍휼함과 인내를 보았다. 이들은 강한 지도력과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예수님의 용기있는 모습을 보았고, 자애로운 미소를 그의 얼굴에서, 용기를 그의 눈에서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모든 걸 함께하고자 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다른 곳으로 가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 이외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4:19-22, 요한복음 6:68, 사도행전 5:20, 사도행전 3:19-20).

예수님은 이들을 위협할 필요도 없었고, 위협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게끔 우리를 초대하셨을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다. 나도 자라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이다.

아주 오래 전 부터, 예수님은 그의 신부를 위해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신부로 입장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뜻은 성전을 따르는 주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와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라는

것이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 속에 거하는 장소, 즉 세상 어떤 것도 필요없고, 속세의 욕망이나 야망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성전의 밑바탕이 되는 교회의 본질인 것이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여 단지 인생을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러 오셨다. 성경에서 말한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아래 불멸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다

“구원”을 받는 것만이 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골로새서 1:26-29, 갈라디아서. 4:19, 요한복음 7:38).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하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가 나사렛 예수의 온전한 영광을 지금 오늘날까지 나타내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또한,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일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와 관련이 있다. 기독교와 종교에 관한 많은 부분은 수년간 우리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그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에베소서 3:10, 마태복음 16:18)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서로 공유할 때만이 비로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창조해낼 수 있따.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격려함으로서 우리가 짓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유이며, 우리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준비된 신부가 되어 기다리는 신랑인 예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수록 우리 자신도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우리가 이기심과 자만심을 접고 서로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신랑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목적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 나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벽이 사라지고 나의 가정과 여러분에 가정 사이에 존재하는 벽이 사라질 것이다. 내 마음속의 이기심, 자만심, 나태함, 불신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자. 모든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그 정도에 따라 예수님은 치유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끌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을 돌아보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게 아니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단지 말뿐만이 아닌 진정한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

# 예수님: 건축자와 디자이너

좋은 재질로 건축하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만 머무르지 않으신다고 나와있다. 에베소서 2장이나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장소, 즉 교회에 머무른다고 나와있다.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또는 운전을 하면서 종교적인 성격을 띤 건물을 보고 그 건물이 어떤 종교적인 성격을 띄고 있음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그 교회를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만 할까? 당신은 어떻게 진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건물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구약 성경에 나와있는 “교회”에 가려면 자신의 부모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어야만 (유대인들)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자신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의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다 자신도 매주 꼬박꼬박 교회를 나가며 십일조를 내고 있는 경우에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회를 묘사해놓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같은 조건은 사실이 아니다, 교회에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강조했다 (예레미야. 31, Heb. 8, Heb. 10).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만 인식되고 이해되어야만 한다. 다른 것들은 단지 선행을 하거나 종교적으로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몇몇 구원받은 이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상의 삶과 연결된 종교생활이 아닌 단지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교회에 나가기만 한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하다 (고린도전서 12장).

진정한 교회는 살아있는 반석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만약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어진 교회라면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나무 뿌리가 썩어가면 나무가 더이상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잘못된 재료로 만들어진 벽돌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된 재료로 만들어진다면, 교회는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이 교회에 나간다면, 이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에 교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래로 만들어진 곳이 아닌, 단단한 반석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3-5절).

그렇다면 교회나 그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모두 완벽해야만 할까? 물론 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요한1서 1장).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상적인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증거하고 진실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점인 것이다 ( 마태복음 6:16-18, 요한복음 3:19-21, 1 요한복음 1-3, Eze. 11:19, Eze. 36:26, Jer. 31:34).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교회, 즉 예수님 성전의 토대인 것이다. 이러한 토대 없이 짓는 교회는 부스러지는 벽돌이나 썩은 나무로 교회를 토대를 만들어 짓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지으시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 될 것이고, 그의 성전에서는 오직 최고의 재료만 쓰여질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모든 이들이 완벽해야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걸 주저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쓰이는 좋은 건축자재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빛을 따르는’ 사람의 정신이다. 썩은 나무와 같은 나쁜 건축 자재는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도움을 원치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러한 사람은, “날 판단하려 하지마. 자기 할 일이나 알아 하시지.” 그리고는 방어적인 태도로 말한다, “네 눈으로 보이는 너의 단점부터 없애봐.”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성전을 그러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하지 않으실 것이다. 썩은 나무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한다 (사도행전 3:23, 마태복음 18장, 고린도전서 5장). 진정한 교회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 돈이 많은 것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상관 없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는 “지도자”로 대우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자들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에 들어올 자격은 갖추지 못했다. 만약 이들이 사랑을 거부하고 변명을 늘어놓거나 지혜와 인내심, 도움을 거절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한 채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를 계속해서 비난할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다 ( 로마서 8:9, 갈라디아서 3, 에베소서 1). 성령과 함께 한다는 증거는 ( 이들이 얼마나 많고도 놀라운 간증을 하며 ‘주님, 주님!’이라고 외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마태복음 7장) 이들이 순종하는 걸 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새 창조물이며 빛과 진실을 따른다 (2 Thess. 2:10), 그리고 마치 ‘막 태어난 아기’처럼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목말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만약 어떤 이가 성령과 함께한다면 이들은 분명히 빛과 진실을 좇아갈 것이고 … 이들의 행동거지 역시 변화할 것이다. 이들은 지금껏 자신의 배우자를 자기가 어떻게 대해왔는가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변화한다. 또한 자신의 직장동료들과 아이들, 혹은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변화한다. 이들은 자신이 지었던 죄와 잘못된 행동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 “이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점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죄를 정죄받고 구원을 받은 이들은 모두 “빛을 사랑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것을 성령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이다.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돌처럼 딱딱했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양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나를 그 쪽으로 안내해줘.” 하지만 염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날 혼자 내버려둬! 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난 내 돈으로 거지를 도울 수도 있어! 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난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고, 네가 뭐라고 하던 난 신경쓰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서약의 동반자이고 진실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10) 빛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3:19-21). 그리고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4, 로마서 6:1-14). 이는 성령이 이제 우리들 누구의 마음 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무나 “주여! 주여!”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자만이, 천국에 다녀오고 천지만물을 창조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8:9-11, 누가복음 9:57-62, 요한복음 1:12-13, 3:16-21, 요한1서 3:8-10, 5:18-20).

진정한 청지기, 즉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아들의 계시,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강요”도 아니고 교섭 내지는 지식이나, 그에 따른 효과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이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과 만남이다.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창조하시고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다 (요한복음 3:5-8, 요한복음

12:24, 로마서 6:1-14, 갈라디아서 6:14-17). 물론 그 중에는 특별히 겸손해야만 하는 이들도 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3:8-9, 요한복음 15, 1 요한복음 2:19, 유다서 11-25).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초자연적인 생활을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 성경적인 면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아니거나 적절한 모양을 갖추지 못한 교회일 수도 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이들은 진정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교회로 부르며 다니는 이들도 있다. 이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다. 우리가 만약 일상 생활에서 예수님을 느끼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면류관을 만질 수 없다, 진실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 좀 더 배우거나, 우리의 목소리를 천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조금씩 바꾸어놓았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다면, 영생을 누릴 수 없으며, 교회의 청지기가 될 수도 없고,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전체를 구성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다.

우리는 올바른 점을 따르는 데에는 바로 달려들면서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마음 속에 존재하지 않은 채로 반그리스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서도 안된다. 예수님은 놀라운 건축자이시다. 예수님은 교회를 물렁물렁한 돌이나 썩은 나무를 사용해 집을 짓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머무르실 영광의 처소를 짓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소를 구성하는 건축자재에는 최고급 건축자재만 쓰여야 한다.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교회는 살아있는 돌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손으로 지어진다. 이는 죽은 돌이나 벽돌, 벗겨진 지은 건물들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좋은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를 지키고, 구원을 얻어 거듭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간다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얹으신 초석위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돌을 놓으며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하고 디자인하기

### 일상 생활에서 예수님 만나기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데 필요한 좋은 건물 자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만약 예수님의 처소를 짓는데 우리가 좋은 돌을 사용하고, 좋은 목재 및 좋은 자재를 사용했다고 하자. 그런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단지 좋은 건축 자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한다고 해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구비했다고 해서 당장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자재들이 당신을 폭풍으로부터 구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머무르실 좋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디자인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의 처소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초석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힘을 합쳐 처소를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신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전문 건축가라고 묘사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청사진과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놀라운 이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많은 일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는 의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많은 이들은 실행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실패했다. 이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실패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디자인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짓지 못한 것이다. 어떤 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길로만

앞서 나간다면 아무리 그들이 진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과 같다.

예수님의 처소는 예수님의 목적과 뜻대로 지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디자인은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의 디자인은 또한 “우리의 죄를 다른 이에게 속죄하고 회개하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뜻한 바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디자인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요일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국가에서도, 어느 언어나 문화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랑의 삶을 따라 일상의 삶에서 가족과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매일매일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먹고 거하며 서로를 여러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 이들이 죄를 목격하게 될 때는 문제를 직시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일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려서 누군가가 설교를 하는 걸 듣기만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 (에베소서 3:10,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뜻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전달자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의 이웃에게 화를 내거나 이기적으로 굴 때, 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음주나 자만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일 일어나는 생활에 적용된다. 이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는 살아있는 반석으로 만들어지고, 예수님 처소의

디자인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행하는 일이어야만 한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가 보이는가? 매일매일 행하는 이러한 행동들만이 당신을 빛과 진실을 사랑하는 이들로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한 주에 몇 번만 주님과 만남으로는 빛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가 나아가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질그릇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자의 든든한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매일 자신을 정진하게 한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자신이 점점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갈 때 얻을 수 있는 또다른 결과는 어떤 이가 빛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기만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데다, 불만과 오만함으로 가득찬 이들이라면,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을 지닐 수도 없고 빛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요한1서 3장).

우리의 이기적이고 게으른 생활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아끼듯이 서로를 아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건설한다면,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처소가 될 것이다. 이는 예수님과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을 가진 처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아무리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집은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반석 위에 지어진 처소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처소를 짓는다고 하고 기도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폭풍이 왔을 때 아무리 그 집이 아름답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이는 마태복음 7

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대로 처소를 지어 예수님의 진실을 실제로 실행하도록 하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폭풍과 같은 것은 몰아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작은 새나 작은 토끼가 폭풍이 다가올 때 돌 뒤에 폭풍을 피하려 숨어있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의 피난처에서 쉴 수 있다. 폭풍은 나무를 흔들고 다른 무거운 것들을 쓸어내 버릴 것이다.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천동번개도 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 달려간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그의 날개 아래 피난처에 숨겨주실 것이다. 거세게 몰아쳤던 폭풍이 지나가고 해가 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인생은 예전으로 돌아가 새롭게 변할 것이다. 이는 매우 강력하게 지어진 하나님 처소의 디자인이다. 폭풍이 밀려와 처소를 공격할 때, 좋은 자재로 지어진 집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소의 디자인은 매우 탄탄하게 계획되어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처소에는 거의 피해가 없을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써야할 자재와 디자인을 직접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처소에 쓰여질 자재와 디자인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새로이 동의한 것처럼, 예수님의 계획은 교회를 매주 참석하며 거룩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을 포함하는게 아니다. 이는 “수많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빛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좋은 뉴스이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왕국을 짓는데 강한 의욕을 보이고 계시다. 하지만 많은 국가나 도시에 건설된 예수님의 처소가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거의 모든 국가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즐거움대로 예배를 드리고 전통을 이어간다고 느끼고 있다. 어쩌면 이들은 자유롭게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상에서 가족과 같이 서로를 위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다.

실질적인 사랑과 이해로 뭉쳐져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모든 반석이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집이라고 부르고 머무르실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한다. 당신이 살아있는 좋은 반석이며 경건한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단지 하나의 돌에 불과하다. 내가 나의 돌을 초석으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수님의 처소를 짓기에 완전하지 못하다. 예수님은 단지 개인이 좋은 돌 하나를 가지고 그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독려시켜, 다른 이들이 가진 반석들과 함께 뭉쳐 매일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일어서거나 앉거나, 길을 따라 걸어갈 때도”, 우리는 늘 하나여야 한다. 서로 빨래를 하거나, 시장에 같이 갈 때도 마찬가지다.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벽돌을 만들고, 나무를 구해오거나 요리를 할 때도 우리는 많은 개개인이나 수많은 가족들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하나로 묶는 일상의 한 과정이다. 이러한 일상의 과제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점은 단지 교회만 나가고 성령의 말을 전하는 이의 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 “영혼의 창”이 되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의 성수에 우리를 씻기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지에 진정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수백명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이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까운 수많은 가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 좋은 자재로 예수님의 처소를 건설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나쁜 자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처소를 짓는데 쓰일 수 없다.

## 튼튼하게 건축하기

### 변화에 대한 용기

십 년이 지나도록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온 대부분의 이들은 종교적으로 잘 조절이 되어있고 교회도 매주 잘 나가고는 있지만 크리스찬이 되고난 첫 해에 비하면 자신의 신앙이 그다지 뜨겁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는 좋지 않은 일이다. 만약 우리의 한 살바기 아기가 10살이 되었는데도 또래 아이처럼 강하거나 똑똑하지 못하다면, 이는 매우 슬픈

일일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직도 1살짜리 아기처럼 몸이 약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강하고 총명하며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이제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직도 1살짜리 아이처럼 강하지도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우리가 제대로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건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죄가 정죄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처소를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인 “교회 건설”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약한 모습이나 죄가 정죄되도록 한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의인들이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교회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선사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우리의 죄가 정죄되고 우리의 약한 모습에 우리가 지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늘 문제를 찾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이들을 선택하셨다. 지금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건설했으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한다는 느낌으로 교회를 나가게 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건설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매우 조심스럽게 계획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늘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높이게 하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뜻을 보여 줄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지음으로서 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지옥으로 가는 문과 동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 상처받은 모든 관계가 치유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건설하여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현명해져서 예수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용기가 당신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자신이 있는가? 어떠한 댓가를 치루고라도 당신의 삶을 바꿀 용기가 있는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용기를 내겠다면, 계속해서 이 글을 읽기 바란다.



# 예수님: 지도자와 우두머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리더쉽

잘못된 기독교적 신앙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몇몇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을 다른 잘못된 신앙 방향으로 인도해서 자신이 “지도자”라고 명명하는 이들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미국이나 인도, 폴란드, 루마니아, 브라질,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에는 “승리하는 영웅적인 모습의 “그리스도인과 “그에 놀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열두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외의 어떤 이도 스승으로 모시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지어며, 지도자나, 인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말고, ‘랍비’라고 칭하거나 ‘목사’라고 칭하지 말고, ‘거룩한 성직자’라고 칭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진정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이들은 “영웅”이 될 수 없다. 어떤 이도 자기 멋대로 결정을 내리거나, 돈이나 사람을 이용할 수 없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뿐이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성경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 몸의 일부분을 떼내고 나누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만드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정신적인 선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으시다. 이러한 선물을 예수님이 단지 “목사”나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이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물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다. 성경에서 보면 성령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선물로 준비되어 있다가 모든 교회에 나누어지고 있다. 당신이 만약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삶을 닦고자 진정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은 당신에게 매우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리더쉽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성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말한다.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곳이 성직자의 왕국이 아닌 성직자가 있는 왕국이라고 말한다. 이는 구약성경에서 특별한 족속인 것처럼 활동한 레위인 성직자들의 모임같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약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성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특정한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모든 선물을 나누어주고 이들을 높은 것으로 이끄신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성직자들의 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적든, 이들이 진정으로 완벽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선물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필요로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선물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이들로 여겨지는 것이다. 한 사람이 가진 선물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수님을 따라 변화하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따르고 숭배하려는 모든 이들 (히브루서 3:12-14) 이 성직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나 권한을 행사할 때 다른 모든 이들은 그냥 앉아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교회를 건설하고 교회 일을 해온 180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오직 "성직자"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어쩌면 모든 이들은 "헌금하는 선물"만이 자신에게 허용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직자나 목자와 같은 일은 수많은 선물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이를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만약 한 사람이 나서서 "성직자"가 되도록 하고, 모든 이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한다면, 이들은 이들이 지닌 선물을 제대로 나누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들이 가진 선물은 "성직자" 선물뿐인 것이다. 선물으로써 이는 너무 작고 타락하기도 쉽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선물을 나누어 가지기를 원해야 한다. 각각의 형제 자매들이 가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부분인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의 일부분을 나누어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형제 자매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가 가진 선물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동의하면 아멘이라고 외쳐보자!

우리가 왜 계속해서 당신이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지 이제 이해하겠는가? 변화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껏 해온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진 선물을 좀 더 잘 사용하고 다른 이들도 이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용기를 가져야 할 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의자에 앉아만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선물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주고 계신다." 자신이 가진 선물을 그대로 사장시킨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넌 나쁘고 게으른 종이니라."라고 하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당신이 가진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나쁘고 게으른" 이들이 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올림픽 달리기 선수인데 누군가 다가와 밧줄로 당신을 묶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챔피언 선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묶인 채 근육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면 당신은 결국 죽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개월간 또는 수년간 그저 침대에 누워 시간만 보낸다면 당신이 가진 잠재력은 없어지고 말것이다. 이 예를 보고, 그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인용해 저질러졌던 일을 알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일들이 바로 1800여년동안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대에 묶인 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왔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들은 제대로 일어나서 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다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한 사람만을 교회에서 찬양하거나 다른 이들의 선물을 감시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선물을 누락시키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죄로 하나님 나라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모든 걸 잘못 설계하고 나쁘게 행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00여년동안,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세계는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혼돈을 느끼며 살아왔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요시아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을 때는, 진실은 인간들의 왕국과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무시되고 묻혀졌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진실도 오랜 시간 동안 알려지지 않은채로 무시되다가 (하지만 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다) 이제서야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적적으로 바꿀 수 있고 그 결과로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하게 된다. 이는 매우 강력하고도 귀중한 사실이다.

우리가 작은 동네에 있던지, 큰 도시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신다"라고 다윗왕의 가까운 친구인 요나단은 말한 바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신다." 우리는 반드시 과거에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진실을 펼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자, 요새, 그리고 든든히 뒤를 받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예수님의 리더쉽 사무엘 VS. 사울

물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은사와 리더쉽이 존재한다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에베소서 4장에서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정신적인 성숙함이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11-16).

이러한 리더쉽의 은사없이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사, 목사와 선생님 등) 우리는 계속해서 각자의 책임을 '서로 떠밀기만 할 뿐'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생활과 경험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공식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교회의 감투나 이름을 내세우는 일은 예수님 스스로가 금지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리더쉽과 사람의 리더쉽 사이에서의 진정한 신뢰성을 시험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세상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교회의 리더쉽을 설정하는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신학교나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많은 이들이나 혹은 능력있는 비즈니스맨이나 강연자들이 자신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도나 혹은 다른 국가에서 자전거를 가진 사람이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글을 읽거나, 지식이 많고, 혹은 말을 잘하고 비즈니스 경험이 많거나 부와 명예, 혹은 교육수준이 높거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쉽이 아니다.

서로 아주 다른 두 종류의 지도자를 비교해보도록 하자. 한 명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고, 다른 한 명은 여러가지 직함도 가지고 있고 여러모로 보기에 ‘지도자’ 역할을 잘 할 것만 같은 공식적인 직장 상사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직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교회에서의 지도자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이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교회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은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없다. 만약 어떤 이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지 못하다가 그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는 지난 주보다 이번 주에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도자 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 이는 어떤 사무실의 직함을 차지하거나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 “직장 상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번 주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천국과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셨다. 이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많이 듣고자 할 때, 교회의 지도자 또한 이러한 목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 “천국과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우두머리”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은 단지 그들이 아는 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뿐일 것이다.

사실 성경에는 매우 다른 두 종류의 지도자의 예가 나와있다. 사무엘과 사울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조건을 갖추었지만, 사무엘은 사실 왕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울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울이 왕이 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도자 역할을 할 이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스라엘 인들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맡은 리더쉽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무엘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아니라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더 잘 다져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다. 반면에 사울은 직책과 직함이 뚜렷한 지도자였다. 사무엘은 사무실도, 비서도, 급여도 없었던 데다가 왕과 같은 ‘중요 직책’에 올라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사무엘은 단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왕과 같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에 불과했다. 사무엘은 왕도 아니고 어떤 직책을 가진 지도자도 아니었으며, ‘목사’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온 맘과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힘을 다른 이들에게 펼칠 수 있었다. 사무엘은 직책은 없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힘이 있었다. 만약 어떤 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한다면, 이러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은 아무런 직책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이 있다. 욥기 29 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이들로부터도 사랑받으며 사탄의 두려움을 사는 이들이 나온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무실도, 직함도,

급여도 없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 힘이나 권력"이 필요없는 것이다.

신도로서, 또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집사로서 필요한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다. 1)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나이와는 거의 상관없이 없고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는 은사를 받은 일 없이 스스로가 자신을 목자나 선지자, 현인, 또는 집사나 신도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2) 나이가 많은 이라도 자신을 성경적인 의미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한 투표를 한다거나 군중 사이에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3) 나이가 많은 이는 교회의 초기 기반을 닦기 위한 목적으로 군중 사이에 자신을 들어내는 일을 해서는 안되지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목자로, 교사나 아버지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요한1서 2:13) 바울은 새로 믿음을 찾으려는 이들의 모임에 감독관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없어도 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이미 사랑과 은사, 성숙함으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를 찾아 이들을 지명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문을 연 뒤 10년이 지나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는 이가 없었다. 성서에도 나오듯이 나이 많은 이나 목자, 감독관, 그리고 신도나 집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제도적인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 나 자신이 목수라고 하자. 난 나무를 사용해 의자나, 테이블, 문을 만든다. 또한 내가 만약 벽돌공이라면, 내가 만든 벽돌을 보여줌으로서 내가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목수도 마찬가지로 나무로 만든 물건을 보여줌으로서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 “ 목사(그다지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를 묘사해놓은 글을 보면 목사는 양들을 이끄는 목자이고 매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 이러한 목사는 우리에게 매일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지도자도 아니고 회의에서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도 아니다. 나 자신이 목사나 목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점이 바로 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매일 돕는다. 내가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지시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마치 내가 만든 의자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서 내가 목수인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 내가 목사/목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로서 이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간다면 이는 내가 나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목말라 한다면 , 이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목자의 마음은 바로 그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 목사임을 인정하신 증거인 것이다 . 내가 목자임을 증거하는 명함은 필요없다. 벽에 위임장을 붙여놓거나 신학교에서 받은 졸업장을 걸어놓아야만 내가 목자임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열매 맺게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

그렇다면 , 당신은 목수인가? 그렇다면 의자를 만들어라. 목자로서의 자질을 하나님께 선물받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영적인 음식으로 살찌우고, 보호하고 , 그들을 도와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선물을 받은 것을 증명하려면 그 선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라.

지금껏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의 반대 상황도 물론 사실일 수 있다 . 과학, 의학, 산업 분야의 이교도들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전문가’라고 칭하며 자기만의 열매를 맺고 독단적이고 자기 뜻대로 남을 판단하는 행동을 보면 놀라울 뿐이다 . 종교계에서는 놀랍게도, 이교도들이 보여주는 것보다도 위엄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또한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편견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준다. 비판 , 전문가적인 의견, 판단, 또는 종교를 비방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삶과 가족들, 삶의 모든 다른 것들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들의 종교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은 공업, 의학이나 실제 비즈니스와 같은 분야에서도 비방을 일삼고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종교 분야에서 두려워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쉽게 불러모아 이들을 지배하고, 홀리고,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다. 이러한 일은 늘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수가 줄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아첨, 소문과 빈정대기, 중상모략이나 감정적인 비방 소문등이 이러한 이들이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 당시 제대로 된 종교 활동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열매는 이기심이나 아첨을 일삼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로 부터 보호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리라 믿는다 . :)

## 모임에서의 예수님의 리더쉽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 지녀야 할 또 다른 용기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모임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할 때 , 형제와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며, 노래이며, 승리이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우두머리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지도자라고, 선생이라고, 우두머리라고, 목사라고 부르지 말지어다. 우리 모두는 형제이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곁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물론 그 사이에는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달란트는 다른 눈에 띄지 않는데 비해 어떤 달란트는 좀 더 남의 눈에 띄기도 쉬울지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한다. 또 어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하고자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평등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6-40절을 읽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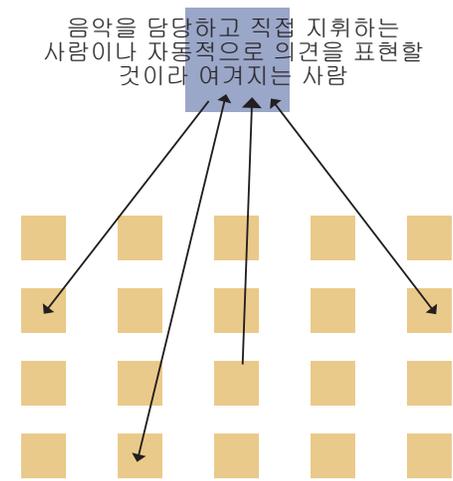
바란다. 예수님 말고 우리를 책임져 줄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우리 모두 “어떻게 우리 모두를 사랑과 좋은 일을 이들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히브루서 10:24-26). 반드시 생각과 기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돕고, 말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특정한 누군가’가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일을 해주지 않는다. 그 대신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라. 어떤 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노래, 구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다면 ... 또는 형제 자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힘을 전하려 한다면 ... 또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목소리 대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자세를 낮추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라고 전한다. 이러한 뜻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의 노래나 구원을 가까이하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하라.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성령이 충만한 가득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우리만의 개신교나 특정 교파, 그리고 이교도 선지자등에 따라 우리의 교회를 규정시켜왔다. ‘목사’나 ‘목회자’, 또는 CEO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모든 가난한 이들은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하는 것 말이다. 이는 보통 종교행위나 교회의 교리처럼 다루어져 왔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신 ‘니콜라탄(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복한 이들)’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바뀌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좀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나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에게 받은 선물을 진실로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께 받은 모든 선물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보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둥글게 모여 앉으셨다. “예수님과 함께 둥글게 모여 앉은 이들이 우리의 어머니, 형제, 자매인 것이다.” (마가복음 3장) 예수님과 같이 둥글게 모여 앉아있다고 생각해보라! 제한된 선물을 가진 이들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둥그렇게 앉는 방법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앉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이 방법이 매우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 프랑스어로 ‘설교단’과 ‘육신’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같다고 들었다.

우리 모두가 앞만 보고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만 쏠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평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앞에 앉아 왕관을 받는 이를 나의 주인이나 지휘자, 우두머리, 또는 교통경찰이나 ‘지위’나 ‘직업’에 따른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비굴하게 복종하게 된다. 우리가 동그랗게 모여 앉는 대신 의자에 한 줄로 모여 앉게 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집중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 모두는 단지 구경꾼이 될 뿐이고, 앞에 선 한 사람만이 집중조명을 받는다. 이는 옳지 못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서로 다른 선물과 달란트는 예수님의 일부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이를 앞에 세우고 하나의 선물만 갖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같다. 늘 ‘특별 좌석’에 앉는 이가 얼마나 자신을 특별하게 여겨야 할지 생각해 보라.

아래에 나와있는 예시 사진을 보면, 보통 ‘교회’라고 하는 흔한 종교적인 건물이나 기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 몇몇의 사람만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고, 모든 일들은 그들을 통해야만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끝내고, 혼자 가르치고 다른 이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지시’를 하며 일의 능률도를 조절한다. 그는 결정권이 있고,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하며, 모든 걸 통제 관리한다. 이는 성서적이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14:26) 의미도 없다.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 우리가 만들어 낸 의식,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 교리가 앞서 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 역시 성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강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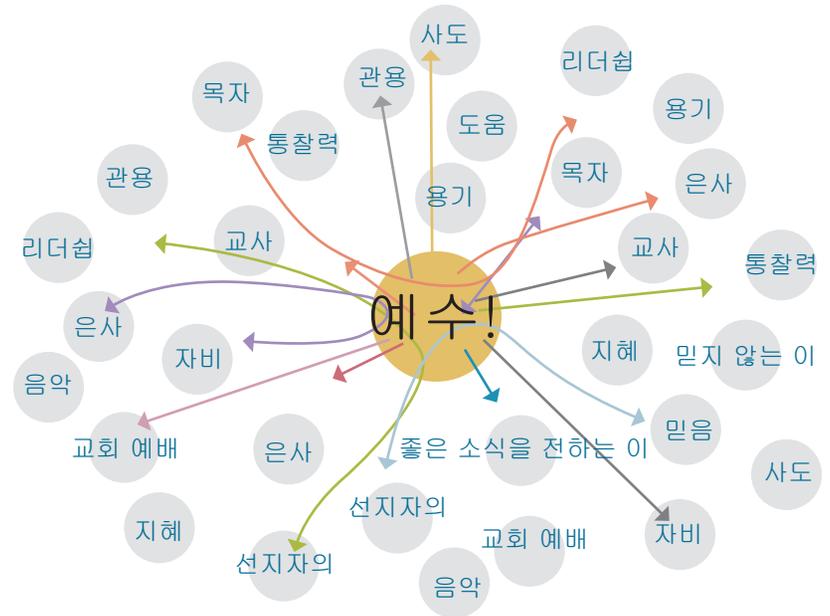


성직자/설교자 시스템은 거의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기독교’도 포함한 기독교를 뜻한다) 미리 계획해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러한 의식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어디에도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허례허식으로 가득차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양들을 이끄는 열두명의 사도”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성자들에 불과하며, 또한 이들이 단지 ‘우리과 같은 형제’이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삶 가운데서 리더로 불러내셔서 사랑과 사무엘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을 뿐, 어떤 이름이나 직책을 주시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사울과 같은 ‘리더쉽’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세뇌당해왔던 일에 대한 과격하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성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되돌아보지 않고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뜻뜻미지근하게 제대로 된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갈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나누는 대화와 가르침이 예수님께 ‘관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부터' 온 것인가? 모든 성자에 대한 비하와 복종, 그리고 자유가 이 모든 일들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과제이다!” 기독교에서 사람이 만들어 낸 ‘교회 참석’이나 ‘거룩한 사람’ 등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막는 크나큰 장애물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계획하고 창조한 일을 행하고자 하며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힘겨루기를 할 때 당신의 곁에 계시지도, 당신이 예수님을 찾을 때 머무르지도 않으실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다던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성직자 제도를 산다던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에 수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교회의 기반을 닦는 건축자들이 가장 중요한 주춧돌 놓기를 주저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건축자들은 승리할 수 없다. 아니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차피 질 거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분명히 반대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3장 등), 이렇게 사람이 만든 건축물과 모든 종교적인 감투는 오늘날에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주신 선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설교’가 좋았거나 성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찬송가’ 당신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나쁜 열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는 것과 성직자 위주의 종교는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이는 또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매일의 삶을 우리가 과연 닮아갈 수 있는지 (고린도전서 12장, 사도행전 2: 42-27, 히브리서 3:12-14)가 우리의 주요 과제여야 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싶으신 것이지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온 이들의 토론 주제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가진 모든 선물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목자의 선물을 지닌 사람이 둥그렇게 모여앉은 우리 옆에 앉을지 모른다. 어쩌면 선생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이 옆에 앉고 자비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앞에 앉을지 모른다. 도움의 선물은 여기에, 선지자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저기에 앉은 식으로 말이다. 이 모든 선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물은 똑같이 소중하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모든 교회가 하나될 때’에 대해서 묘사한 바 있다. 그는 예수님이 마음 안에 살아있는 성자들의 움직임을 묘사해냈다. 12장에서 묘사된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닮게 살려는 그리스도인처럼 교회가 하나될 때 이들의 삶도 성직자나 목사의 삶과 같아야 한다. 교회가 하나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 곳에는 오만하거나 감투를 쓰고 틀에 박힌 설교나 노래를 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 받은 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교자가 취해야 할 자세를 보여준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교회를 위해 언제든 때가 되면 쓰여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음악이나 설교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살아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 어떤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이거나 책에서 보고 배우는 위인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우리의 선물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선물은 필요한 시기면 언제든지 쓰여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젊은이가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을 겪거나, 자신의 자녀들과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어떤 여인이나, 선생님의 선물, 용기, 목자, 도움등이 모두 교회에서 보여지고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청사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닌, 자신의 교회의 살아있는 머리가 되어 역사하신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좇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가야할 방향을 알 수 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된 교회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교감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선물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만남을 통해 함께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뜻을 자신들만의 ‘설교 시간’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계속해서 조정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들이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근절해야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성직자에 관한 예수님의 뜻, 진정으로 예수님의 몸과 머리가 되는 교회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아마추어 설교 시간을 보낸다거나 비성서적인 내용으로 이런 시간을 보내라는 건 절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차례가 오면 말을 함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들이 무언가를 꼭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지난 주에는 발언권이 있었으니 이번주에는 말할 수 없다와 같은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직에 임무를 부여받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신권정치에 더 가깝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두려워 하거나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니면 영영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가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면서 겪는 자유와 순종의 뜻이 나와 있다. 하지만 1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 했듯이 이 장을 읽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몰이해나 지혜가 부족한 결과로 생겨나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방종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4장은 10-13장에 나와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의미의 ‘삶’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자신보다 먼저 구원받은 자가 있을 때 그에게 배우고

고개를 숙이라.”는 뜻에는 어떠한 꾸며진 종교적 행동이나 ‘거룩한 사람’과 같은 내용이 없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한결같으실 것이다. 공포와 욕심, 권력이나 야심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거룩한 날에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 대신 자신이 가진 선물을 사용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원하신다.

물론 이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자신의 종교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써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공공연하게 포교활동을 하며 승리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과 다르게 이러한 포교활동에는 대화(dialogue)가 있었다 (영어 ‘dialogue’의 뜻은 원래 그리스어로 트로아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즉 아무런 방해없이 ‘모노로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베소나 아테네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포교활동을 할 때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되어야 한다’라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라고 주장하곤 했다 - 고린도전서 14장 참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거리 설교’를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 바울은 이교도 ‘학교’를 사용해 이교도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를 하기도 했다 (사도행전 19:8-10).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듣도록 했다. 이는 물론 고린도전서 12-14장에서나 사도행전 20장에서처럼 바울이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던 구원받고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지옥의 문이 교회를 가로막고 있지 않기를 원하며 교회를 건설하셨다! ‘바로 이렇게 모든 이들이 나의 뜻을 깨닫고 따라야 한다.’ 그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매일같이 느끼는 일이 일상화가 되어 믿음을 향해 승리해 나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이 같은 생활속에서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져서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들 (사도행전 2:42-47, 고린도전서 12-13)이 하나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말 쉬운 일이다. :) 하나님이 우리와 신체적으로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를 갈구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계획과 지배구조 속에서 전통과 쇼맨쉽등을 강조하는 세상 속에 살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일깨워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인도하심이, ‘동이 터올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 생활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리더쉽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2-13장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인지를 알지 못하면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12-13장을 읽어야 14장이 이해가 되는 것과 같다. 사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하기까지조차 하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모른채 하며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주제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역동적으로 느낄 자세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만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겨있는 삶을 사는 종교인들을 보면 왜 ‘거룩한 사람’이 주도하는 예배가 자신의 용기를 발판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해 수많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인생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삶의 질에 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13장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4절에 보면 자유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우리에게 ‘관객’이 되기 보다는 설교를 해야한다고 권할 때 우리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서 일상 생활에서도 이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3:10). 사도행전 2:42-47, 고린도전서 12장, 히브루서 3:12-14, “수많은 어머니들, 형제 자매들이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정적인 찬양을 한다거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예배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즈니스맨의 마음과 같지 않다. 누가복음 9:23-27, 57-62을 보면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가 나온다. 이는 “나중된 자 더 크게 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이끄셨다’는 미명아래 계획없는 예배를 드린다가나 계획을 따로 해서 드리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아닌 것과 같다.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을 부여할 때 이러한 일은 자주 일어나는, 예측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종교적으로 사는 일과 살아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뜻에 비하면 우리가 ‘예배’와 ‘예배 구조(종교적인 기관이나 교회)’를 창의적으로 개조하는 일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새롭고 진보하는’ 곳으로 개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실 뿐이다. 그렇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예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맺는 열매일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적의식은 아니다. 새롭고 변화된 제도나 기술을 만든다던지, 좀 더 개선된 예배구조나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는가, 또는 비성경적인 내용에서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2) 살아있는, 우리가 찬양하는 왕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도록 말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인간적인, 천국 같은 삶, 영생의 삶 또는 하나님의 힘과 진리와 삶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속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사는 인생과 생명수가 흐르는 강 같은 삶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을 따라사는 이들의 삶은 우리의 눈과 이 세상의 잣대로는 잦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가에 집중되어서만은 안된다. 예수님이 천사의 메시지와 함께 이 세상에 가져오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알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예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껍데기만 가득한 예배의 모습을 전하러 오신것도, 어떤 정치적인 운동이나 교회를 더 지으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교회에 임하는 예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 (에베소서 3:10) 이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단지 이들의 삶을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삶과 지혜를 가지도록 하신 것이다.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단지 자비만을 베푸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짓고 계시고, 이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는 문을 보지도 못하게 했다. 예수님의 은혜와 권세는, 우리를 사탄의 노예가 되거나 사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들을 구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귀로 소식을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크나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러한 일에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의 많은 변화가 올거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시작하면 당신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이가 될 것이고, 예배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중 90%는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에서 오는 것이고 나머지 10%만 예배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당장 다른 이들의 집을 방문하여 예수님의 뜻을 전파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과 식량과 옷가지들을 챙겨 그들의 집으로 가라. 자신의 아이 때문에 화가 난 가정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보라. 어떤 가정에서는 그들이 자부심으로 가득찬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자만심을 지니지 말라고 이야기해보라. 한 형제에게 이기심을

발견한다면, 그에게 더 이상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보라. 우리는 단지 눈을 감은 채 다음 예배시간이 올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이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야 한다. 수많은 어머니들과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내용 역시 히브루서3장뿐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잘 나와있다.

히브루서 3:12-14: “조심하라,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마음이 불신과 사탄으로 가득차 살아가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 반드시 서로를 주의하고 용기를 주며 서로를 독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오늘이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굴복당하거나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녀로 남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한 부분을 보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매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매일 존재해야 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매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매주 일요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매주 수요일 일요일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예배만 언급된 것도 아니었다. 가능한한 진실의 각도에서 서로의 삶을 바라보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 자신의 잘못된 생활태도나 이기심, 자만심, 또는 삶의 방식들을 서로 조명해 나가고 고쳐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가 점점 더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는 자신이 하는 일이다 옳다고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 부분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매일 내가 만약 내 형제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난 점점 무더질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 ‘나는 기도를 매일 하지!’, ‘내 부인은 그리스도인이고 난 그녀를 매일 만나!’라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킬지도 모른다. 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이들의 삶에 매일 관여할 수는 없다. 당신은 점점 더 무더질 것이고 더욱 더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될 것이다. 히브루서 3:12-1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의 내용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누가 성경을 썼는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서로가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이기적으로 군다면, 당신은 나에게 다가와 “형제여, 이기적이어서는 안된다. 그제 예수님을 슬프게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자만심에 들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게 아니라고 내게 다가와 말할 수 있다. 난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는 일을 늘 내가 눈여겨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매일 서로의 삶을 돌아보아 그 누구도 무더지거나 자신을 기만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들어내게 하는 일이다.

늘 성경을 가까이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이해하려 힘쓴다면 앞으로 2년 후에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지를 보고 놀랄 것이다. 서로를 매일 존중하라. 서로의 아이들과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 가서 보고, 자신만의 편안한 자리에서 빠져나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해보라. 그렇다, 난 당신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의 삶에 붙어넣어주라. 사랑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매일 서로를 일깨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어라. “서로가 하나 될 때, 모든 이들은 자신의 찬양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중에 구원을 받은 자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먼저 된 자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찾게 될수록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다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잘못된 점과 거짓을 가려내시고, 약한자를 강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떤 부자들이 당신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라. 이제 당신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을 매일 살아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곳에 와서 우리의 왕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성경은 100%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배워나가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워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쓸 수도 있다. 우리의 삶도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세상에서 배우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배우는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심오한 일들은 우리가 단순히 글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공부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은 비로소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세상의 성경공부와는 다른, 모든 이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신다. 교회의 기반과 기둥은 진실이다. 우리 삶의 등불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인생은 학교에서 어떤 가를 배우고 지식을 얻어 시험을 치는 것과는 다르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소통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서로 공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바도 그대로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느꼈던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행을 통해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배우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희망을 보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서로를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자 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문으로 다가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지은 죄도 모두 정죄될 것이고 악함과 고통도 모두 치유될 것이다. 모든 죄가 사해될 것이다. 당신의 친절함이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신이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 치유되거나 회복될 것이다. 우주에 빛나는 별처럼 당신은 빛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굴에 보이게 될 것이다. 신부와 교회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오시기를, 신랑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해가 가는가? 아멘!

### 하나님의 목적 ... 지금이다!

예전에 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처음에 시작하기로는, ‘가끔씩, 천년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한 정말 놀라운 이가 세상에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당신에게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보통 눈을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우주를 보는 것 말이다. 히브루서 11장에 나온 이들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영광의 종이 되는 것이다. 히브루서 11장에 나왔던 신앙인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건축하신 이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에 건설된 왕국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손으로 가능해볼 수는 없다고 해도, 아직 그 곳에 갈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해놓은 곳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널리 알렸다.

똑 같은 과제가 당신과 나에게 있다. 세상을 뒤돌아보고, 내가 있는 우주를 돌아보고, 특히 하나님의 왕국을 지향하는 교회를 눈여겨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인지, 그 환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거는 것과 같다. (시편 69:8-9) 당신은 당신의 가족도, 당신의 직업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져야할 태도인 것이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만하는 자세이다. 이는 단순히 유행하는 생각이 아니라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간에, 당신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느 나라나 지금 당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던지 간에) 당신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며 받아들이지 않거나 비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이는 당신의 눈을 멀게 할 것이며 당신이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잃게 할 것이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당신을 유혹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도록 자신을 잃어서는 안된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수많은 지혜롭고 똑똑한 이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드리라고 용기를 주고 싶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고 당신의 죄가 정결케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을 말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바램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정말 아주 아주 가끔씩, 천년에 있을까 말까한 이가 우리 앞에 다가와 놀라운 것을 보여줄 때가 있다. 그 내용이 바로 히브루서 11장에도 나와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거기에는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사가 숨어있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껏 이야기해 온 내용이 적어도 있을 법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함을 느끼고 여러분의 삶이 그로 인해 변화했음을 느낄 때까지 지켜야할 과정이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능하면 뿌리뽑고 싶다. 하나님은 잘못된 종교와 이단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이들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3:10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나 더 많은 이들이 이러한 말씀을 양식처럼 여기고 늘 가까이하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은사를 받은 이들은 매일같이 모여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려 애쓴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이는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나, 남을 가르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단지 매일 하게 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을 지옥의 문에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관참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시작하신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제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단지 참석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로 연결하여 서로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삶인 것이다. 예수님이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이들이 천국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모두 쓸모없이 만들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탄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 보았을 때, 이제부터 우리가 창조할 교회의 변화의 바람과도 연관이 깊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유토피아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회 활동이론이나 새천년 이론, 또는 종교적인 반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져다주신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남에게 빌린 당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 예수님 소유의 물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권력도, 교육 수준도 높지 못했으며, 어떠한 정치적인 수단도 없었고, ‘어떤 이들이라도 아름다움이나 허세가 없어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다.’ 우리는 인간의 뿌리가 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존재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함으로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반석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제국이나 그 어떤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나사렛 예수를 다시 맞아 들이자.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교회 강대상을 앞으시고 필요하시면 매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알리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환영하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하러 오셨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신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거룩함과 신성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과 같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변화하고 거듭나는 것과 같다. 다같이 무릎꿇고 기도하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모든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활활 타는 저 숯불로 당신의 입술과 가슴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보고 외쳐라.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